

마음 열기

찬송가 259장을 함께 부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말씀 나누기 레위기 20장 1-7절,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물렉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1-5절).

‘물렉’은 암몬 자손의 우상으로써, 가나안 땅의 토착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물렉을 섬기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실 정도로 물렉 숭배를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물렉을 섬기는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렉을 섬기는 목적과 의도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렉 숭배는 달궈진 물렉 동상 손 위에 자기 아들을 산 채로 태워 죽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렉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사 때문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법을 몰랐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전쟁과 기적의 신이지만, 곡식과 태양의 신은 물렉이니 농사를 위해서는 물렉을 섬겨야 한다”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섬기고 농사를 위해서는 물렉도 섬기는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사람이 떡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신8:1-3). 오늘날 우리는 자식을 불에 태워 우상에게 바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곧 자신을 바친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 스스로를 바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신앙과 세상의 영역을 나누고, 세상의 것은 사람의 방식을 따라가려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과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영적 물렉을 쳐부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점신한 자와 무당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6절).

하나님께서서는 점신한 자와 귀신 들린 무당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로서, 사탄과 함께 멸망당할 악한 영입니다. 무당은 이러한 귀신에게 조종을 받아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에 사람의 근심이나 생활 속 고민을 어느 정도 알아 맞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무당이 더 신령해 보이고 응답이 빠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귀신은 결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옳아매어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며 참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무당을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따지며 두려워하는 것이 무당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영적으로 무당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나 악한 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를 결코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을 먼저 찾아가기보다, 우리의 방패와 그늘이 되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7절).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더러워진 이 세상 안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거룩한 자들에게 예비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교회를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욕심에 붙들려 우상을 찾고 무당을 따라가며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으며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맺음말.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거나,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아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결국 우리를 얽매고 멸망의 길로 이끌 뿐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는 것뿐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늘 예배와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으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은혜의 빛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1.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의 특정 영역(경제, 인간관계, 가정 등)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을 더 의지하며 타협했던 적이 있나요?
2. 내가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고 거룩해지기 위해,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섬겼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2. 나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나 스스로를 세상에 바쳤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3.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FAMILY 나눔

2026년 7월 19일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 20장 1-7절

